

금융시장 이번주 고비…위기설 잠재워지나

9월 위기설로 흔들리고 있는 금융시장이 이번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채권 물량소화와 정부의 재권발행 성공으로 불안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10일 외국인 채권만기 5조7천 억원 집중, 외환·주식시장 안정될 듯 =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

7조원대 외국인 만기 채권 상환 자금 확보

환율·주식시장도 안정…美금융 불안이 변수

독원에 따르면 9월에 불려있는 외국인 보유채권은 지난 5일 현재 6조8천억 원으로 줄었으며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한 상환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오는 10~11일께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형기금(외채관)을 해외에서 발행할 예정으로, 성공할 경우 위기설이 촉발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주 중반부터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가 집중돼 있는 9~10일을 기점으로 외환시장의 안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설이 최근 주가 급락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증시도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만기 이후 외국인 자금의 이탈 여부와 환율 움직임, 여기에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같은 날 웨드러플 위험데이(지수 및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중요 한 증시 변수로 꼽히고 있다.

◇ 정부 불안요인 관리 강화… “안심은 금물” =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기설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더라도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안심하

기 힘든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서브 프리미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파 등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국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위기설이 번져서 실물경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까봐 우려했는데 다행히 일단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며 “대내외적 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설이 사라지더라도 정부가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물가·민생안정 주력”

건설부문 고용 늘리고 청년·고령자 일자리도 확충

재정부, 경제운용 계획

기획재정부는 7일 “유가 상승, 선진국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해 물가와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건설부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촉진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 물가안정 주력 =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과 에너지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가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율을 연말까지 10%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내놓았고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에 이어 하반기에도 철도·상수도 등 15개 중 11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병행수입 제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곡물·농자

재·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긴급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고철·철근 등에 대한 매집폐석 품목 고시, 수급에 품목에 대한 비축률과 방출량 확대 등도 실시했다.

◇ 부동산시장 활성화 추진 = 정부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와 금융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지난 6월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LTV) 상향,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부 보유기간 연장 등을 담았다.

지난 8월에는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됐다.

◇ 투자 활성화 과제 = 정부는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 아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양벌 규제 정비,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담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6월에 발표했다. 이달 발표한 제2단계 추진방안에서는 물류·유통·정보통신·외환부문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하락 전망 속에서도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기업들은 영어 등 통상적인 평가항목 외에 회사별로 특화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어학능력 보강과 함께 면접 단계에서 회사의 비전에 부합하는 자신의 장점을 창의적으로 부각시키는 요령을 터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하반기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주요 그룹들은 신입사원 선발규모를 늘려 채용에 본격 나서고 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채용 홈페이지인 ‘디어삼성’(www.dearsamsung.co.kr)에 모집공고를 내고 하반기 대졸

/연합뉴스



웰빙 피자 드세요

미스터 피자가 주최한 ‘제4회 그녀들의 피자 콘테스트’에 출전한 여성들이 7일 서울시 종로구 수도요리학원에서 열린 본선대회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재료로 직접 만든 다양한 웰빙 피자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불황에도 대기업 채용 늘린다

삼성 4,000명·현대 기아차 4,500명·금호아시아나 1,100명 등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하락 전망 속에서도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기업들은 영어 등 통상적인 평가항목 외에 회사별로 특화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어학능력 보강과 함께 면접 단계에서 회사의 비전에 부합하는 자신의 장점을 창의적으로 부각시키는 요령을 터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하반기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주요 그룹들은 신입사원 선발규모를 늘려 채용에 본격 나서고 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채용 홈페이지인 ‘디어삼성’(www.dearsamsung.co.kr)에 모집공고를 내고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삼성의 하반기 채용규모는 4천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 가량 늘어난 800여명을 추가 선발하는 셈이다. 원서접수는 8일까지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당초 4천300명 이었던 올해 채용목표를 11.6% 올려 잡아 연말까지 4천500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에는 그룹 전체에서 2천500명을 채용한다.

LG그룹은 작년 하반기보다 36%

증가한 1천900명을 하반기 모집 인원으로 잡았다. 계열사별로는 LG전자 가 500~700명으로 가장 많고 LG CNS가 500명, LG디스플레이 200~300명, LG화학 100명 등이다.

한화의 경우 작년 하반기보다 50% 나 늘어난 9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키로 하고 오는 8일부터 나흘간

신촌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계열사 채용담당자가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16~25일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ha.co.kr 또는 www.netcruit.co.kr)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한다.

롯데그룹의 대졸 공채규모도 지난 해 대비 10~20% 늘어난 770~840명으로 정해졌으며 신세계는 오는 10월 중 인턴사원 100여명, 현대백화점은 신입사원 8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GS그룹은 GS칼텍스 80명, GS리테일 200명, GS홈쇼핑 30명, GS건설 140여명 등 65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천100여명, 대한항공은 200여명, 대림산업은 토목·건축·연구·관리부문 등 100여명을 채용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S&P환경기술	경리·회계업무·정규직 여사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9/10	011-624-0648
밀플러스성형외과	성형외과 수술방 간호(조무)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1	062-363-0075
씨에이치슬루션(주)	(주)5일/고정급152)SK텔레콤 CRM 송정리센터 멀티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9/11	02-456-9799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입학사정관	대원졸/경력무관	4000~5000	09/12	062-530-1037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교사(자동차정비/자동차체수리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605-808
순천농업협동조합	문화센터 운영실무자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2	061-720-8222
벽신건설(주)	사무보조 여사원(계약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12	062-351-0162
신성지동차(주)	영업팀 및 정비팀(정비, 판매, 도장, 리셉션, 어드바이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376-2556
㈜별해정보	도매·납품 및 경리직 정규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15	062-525-8880
케이엠씨씨	KMCC 촬영기사/포토샵/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971-0898
이인경	경리 및 사무관리업무 시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9/15	062-528-3223
봉천애드	광고디자인업무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529-6671
동양생명	재무설계/자산관리/투자 보장자산 상담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16-430-869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못한다

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전환 금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환 또는 보증용도일 경우 보금자리를 취급하지 말라고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거나(상환용도), 기존에 전세를 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증용도) 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공사는 주택 구입용도일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으나 이를 막은 것이다. 금융공사가 보금자리를 제한한 것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하면서 대출금리보다 조달비용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 팔수록 손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주식형펀드 인기 시들?

7월 한달 계좌 수 20만개 가까이 줄어

2006년말 이후 처음… 환매 조짐 우려

지난 7월 한달간 주식형펀드 계좌수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20만개 가까이 줄었다.

계좌 수 감소는 단순히 시장상황의 부진으로 유입자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펀드투자자가 아예 펀드시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업계는 이런 흐름이 추세로 굳어질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이탈계좌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은행권 고객이 대거 이탈한 것과 관련해 은행권의 펀드 고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자산운용협회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국내 30개 펀드투자자는 2006년 7월말 현재 20만개 가까이 줄었다. 지난 7월 한달간 주식형펀드 계좌수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20만개 가까이 줄었다.

계좌 수 감소는 단순히 시장상황의 부진으로 유입자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펀드투자자가 아예 펀드시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업계는 이런 흐름이 추세로 굳어질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이탈계좌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은행권 고객이 대거 이탈한 것과 관련해 은행권의 펀드 고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자산운용협회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국내 30개 펀드투자자는 2006년 7월말 현재 20만개 가까이 줄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1천8만6천146개로 전월보다 6만1천472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해외 주식형펀드는 788만8천684개로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훨씬 많은 13만3천869개나 줄었다.